

국문학의 기초 - 고전산문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2017. 04. 07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月明師兜率歌 (일명사도솔가)>

月明師兜率歌

景德王十九年庚子四月朔二日並現扶旬丕滅日官
 奏請緣僧作散花功德則可獲於是潔壇於朝元殿駕
 幸青陽樓望緣僧時有月明師行于阡陌時之商路王
 使召之命開壇作啓明奏云臣僧徂屬於國仙之徒只
 解獅歌不聞聲梵王曰既卜緣僧雖用獅歌可也明乃
 作兜率歌賦之其詞曰 今日此矣散花唱良巴寶白
 于隱花良汝隱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彌勒座主陪互羅良 解曰 龍樓此日散花歌挑
 送青雲一片花殷重直心之所使遠邀兜率大僊家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月明師兜率歌(월명사도솔가)> [삼국유사] 감통 제 7

○ 景德王(경덕왕) 十九年(19년) 庚子四月一日(경자4월1일)에 해 둘이 나란히 나타나 열흘 동안이나 없어지지 않았다. 日官(일관)이 아뢰기를 緣僧(연승)을 청하여 散花功德(산화공덕)을 지으면 災殃(재앙)을 물리치리라 하였다. 이에 朝元殿(조원전)에 깨끗한 壇(단)을 설하고 靑陽樓(청양루)에 行幸(행행)하여 緣僧(연승)을 기다렸다. 때에 月明師(월명사)가 阡陌(천맥) 남쪽길을 가므로 王(왕)이 使者(사자)를 보내 불러 壇(단)을 열고 祈禱文(기도문)을 지으라 하였다.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月明(월명)이 아뢰기를 僧(승)은 國仙徒(花郎徒)[국선도(화랑도)]에 속하여 단지 鄉歌(향가)를 알뿐이요 梵聲(梵唄)[범성(범패)]에는 익숙치 못하다고 하였다. 王(왕)이 이르되 「이미 緣僧(연승)으로 뽑혔으니 鄉歌(향가)라도 좋다」고 하였다. 이에 月明(월명)은 兜率歌(도솔가)를 지어 바쳤다. 그 歌辭(가사)에 「오늘 이에 散花歌(산화가)를 불러 뿌린 꽃이야 너는 곧은 마음에 命(명)을 심부름하여 彌勒座主(미륵좌주)를 모셔라」하였다. 그 詩(시)를 해석하면 이렇다. 「龍樓(용루)에서 오늘 散花歌(산화가)를 불러, 靑雲(청운)에 一片花(일편화)를 보내니 殷重(은중)한 곧은 마음이 시킴이니 멀리 兜率(도솔)의 大仙家(대선가)를 맞이하노라」하였다.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지금 俗(속)에 이것을 散花歌(산화가)라고 하나 잘못이고 宜當(의당) 兜率歌(도솔가)라야 할 것이다. 散花歌(산화가)는 따로 있으나 글이 번다하여 실지 않는다. 조금 있다가 해의 괴변이 사라졌다. 王(왕)이 嘉尙(가상)하여 品茶(품다) 한 봉과 水精念珠(수정염주) 百八箇(108개)를 下賜(하사)하였다. 忽然(홀연)히 외양이 깨끗한 한 童子(동자)가 공손히 茶(다)와 珠(주)를 받들고 宮殿(궁전) 西(서)쪽 小門(소문)에서 나타났다. 月明(월명)은 이것이 內宮(내궁)의 使者(사자)라 하고, 王(왕)은 師(사)의 從者(종자)라 하였으나, 玄徵(현징)의 결과 모두 아니었다.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王(왕)이 매우 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뒤를 쫓게 하니 童子(동자)는 內院塔(내원탑) 속으로 숨고, 茶(다)와 珠(주)는 南壁畫(남벽화) 彌勒像(미륵상) 앞에 있었다. 月明(월명)의 지극한 德(덕)과 지극한 정성이 이와같이 至聖(지성)에게 비추운 것을 알고 朝野(조야)가 모르는 자가 없었다. 王(왕)이 더욱 恭敬(공경)하여, 다시 絹百疋(견100필)을 주어 큰 정성을 표하였다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月明(월명)이 또 일찍이 亡妹(망매)를 위하여 齋(재)를 올리고 鄉歌(향가)를 지어 祭祀(제사)할 새, 忽然(홀연)히 狂風(광풍)이 일어 紙錢(지전)을 날려 西(서)쪽으로 향해 없어졌다. 그 鄉歌(향가)에 하였으되 「**生死(생사)의 길은 이 에 있으며 저허하여 나는 갑니다 하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갔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곳 저곳에 떨어지는 잎 같이 한 가지에 나가지고 가는 곳 모르는가, 아아 彌陀刹(미타찰)에 만나볼 내 道(도)답아 기다리고다.**」.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月明(월명)이 항상 四天王寺(사천왕사)에 있어 저(笛 : 적)를 잘 불었다. 일찍이 달밝은 밤에 저를 불며 門(문)앞 큰길을 지나니 달이 가기를 멈추었다. 이로 인하여 그 길을 月明里(월명리)라 하였다. 法師(법사)도 또한 이로써 이름이 나타났다. 師(사)는 곧 能俊大師(능준대사)의 門人(문인)이다. 新羅(신라) 사람이 鄉歌(향가)를 崇尚(숭상)한 자 많았으니 대개 詩頌(시송)과 같은 類(유)다. 그러므로 往往(왕왕) 능히 天地鬼神(천지귀신)을 感動(감동)시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讚(찬)하노니 「바람은 紙錢(지전)을 불어 저 世上(세상)에 가는 누이의 路資(노자)를 삼고 부는 저는 明月(명월)을 움직여 姮娥(항아)를 머무르게 하도다. 兜率(도솔)이 하늘에 連(연)하여 멀다고 하지 마라. 萬德花(만덕화) 한 곡조로 맞이하였으니」.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삼국유사> 등에서 만나볼 수 있는 향가의 기본 특성

- 향가는 불교의식요나 한시와 구별되는 고유의 우리말 노래
- 향찰로 표기된 기록문학
- 집단적, 개인적 요소 공존
- 신이로운 힘이 있다고 여겨진 작품들 존재 : 집단적 개인의 노래이면서 주술적 서정시의 면모를 동시에 지님 - 고대문학과 철저히 결별하지 않은 중세전기 문학의 특징

비교 : 중세 후기의 시조는 개인적이며, 주술성이 적은 서정시로 변모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향가	시조
<p>〈해가〉 순정공의 부인 수로가 바다의 용에게 잡혀 가는 사건이 발생하니, 어떤 노인이 나타나 경내의 백성들을 모아 막대기로 바닷가를 두드리며 이 노래를 부름</p>	<p>〈단심가〉 “이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정몽주)</p>
<p>〈혜성가〉 화랑 셋이 풍악으로 놀러 가려 할 때 혜성이 나타난 심대성을 범하니, 불길함을 느껴 용천사가 이 노래를 지어 부름. 그러자 혜성이 사라지고 일본의 병사들도 자기 나라로 돌아감</p>	<p>〈오우가〉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 동산에 달 오르니 기 더욱 반갑고야 /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더하여 무엇 하리.”(윤선도)</p>
<p>〈제망매가〉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위해 재를 놀리며 이 노래를 부르니, 제단에 놓은 돈이 서쪽으로 날아갔다고 함</p>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향가와 “사뇌가”

- 향가 가운데 “사뇌가”는 좀 더 세련된 노래를 가리키는 듯
- 신라의 귀족문화가 기층의 문화와 분화되면서 나타난 유형
- 민요에서 유래한 향가와 구분하여 국선지도와 같은 인물들이 지은 노래 가운데 일부를 가리킴 / <찬기파랑사뇌가>
- <균여전>에서는 균여가 ‘사뇌’를 지었다고 하며 “뜻이 말에서 정교하기 때문에 뇌라고 일컫는다.”라는 주석을 달았음
- 균여의 작품을 한역한 최행귀도 “11수의 향가가 말이 맑고 구절이 아름다우므로 그 작품을 사회라고 일컫는다.”고 서문에 서술하였음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慶州東南境乃防日本塞垣也周迴六千七百九十二
 步五尺役徒三万九千二百六十二人掌負元真帛于
 開元二十一年癸酉唐人欲征北狄請兵新羅客使六
 百四人來經國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德經等大王備禮受之王御國二十四年五岳三山神
 等時或現侍於殿庭三月三日王御啟正門樓上謂左
 右曰誰能逾此得一負縈服僧來於是適有一大德威
 儀鮮潔徜徉而行左右望而引見之王曰非吾所謂縈
 僧也退之更有一僧被衲衣負櫻筒一作荷從南而來王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景德王(경덕왕)·忠談師(충담사)·表訓大德(표훈대덕)> [삼국유사] 기이 제 2

(唐 : 당에서)(道)德經等[(도)덕경등]을 (보내니) 大王(대왕)이 禮(예)를 갖추어 받았다. 王(왕)이 御國(어국)한 지 二十四年(24년)에 五嶽(오악) 三山(삼산) **의 神(신)**들이 간혹 現身(현신)하여 殿庭(전정)에서 왕을 모시더니, 三月三日(3월3일)에 王(왕)이 歸正門(귀정문) 樓上(누상)에 납시어 左右(좌우)에게 묻되 누가 능히 途中(도중)에서 한 榮服僧(영복승)을 데려올 수 있겠느냐 하였다. 이때 마침 威儀(위의)가 깨끗한 한 大德(대덕)【高僧(고승)】이 있어 길에서 徘徊(배회)하고 있었다.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左右(좌우)가 보고 데리고 와서 보이니, 王(왕)이 가로되 내가 말하는 榮僧(영승)이 아니라 하고 도로 보냈다. 다시 한 종이 衲衣(납의)를 입고 櫻筒(앵통)【혹은 荷簞(하책)이라 함】을 지고 南(남)쪽에서 오는지라, 王(왕)이 기뻐하여 樓上(누상)으로 迎接(영접)하고 그의 통속을 보니 茶具(다구)가 담겨 있었다. 네가 누구냐고 물으니, 忠談(충담)이라고 대답하였다. (또) 어디서 오느냐고 물으니, 가로되 내가 매양 重三(중3)과 重九日(중9일)에는 차【茶 : 다】를 다려서 南山(남산) 三花嶺(삼화령)의 彌勒世尊(미륵세존)에게 드리는데, 오늘도 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하였다. 王(왕)이 나에게도 차 한 그릇을 주겠느냐 하니 종이 차를 다려 드리었다. 차의 맛이 異常(이상)하고 그릇 속에서 異香¹⁵(이향)이 풍기었다.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王(왕)이 가로되 내가 들으니 師(사)의 耆婆郎(기파랑)을 讚美(찬미)한 詞腦歌(사뇌가)가 그 뜻이 매우 높다 하니 果然(과연) 그러하냐. 대답하되 그러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 安民歌(안민가)를 지으라 하였다. 忠談(충담)이 곧 命(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치니 王(왕)이 아름다이 여겨 王師(왕사)를 封(봉)한대 忠談(충담)이 再拜(재배)하고 王(왕)이 사양하며 받지 아니하였다. 그의 安民歌(안민가)에 가로되 「君(군)은 아비요 臣(신)은 사랑스런 어미시라, 民(민)을 즐거운 아해로 여기시니, 民(민)이 恩愛(은애)를 알지로다, 구물 구물 사는 物生(물생)들, 이를 먹여 다스리니,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소냐, 나라를 지닐 줄 알지로다」하고, 後句(후구)에는 「君(군)답게 臣(신)답게 民(민)답게 하면, 나라는 太平(태평)하리이다」하였다.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讚耆婆郎歌(찬기파랑가)

「열치(헤치)고 나타난 달(月 : 월)이, 흰구름 쫓아 떠가는 어디에, 새파란 냇물
속에,耆郎(기랑)의 모습 잠겼세라,逸(延?)烏川[일(연?)오천] 조약돌이 郎
(낭)의 지니신 마음 갓【際(제)】을 쫓고자, 아 - 잣【栢(백)】가지 높아 서리【霜
(상)】모를 꽃판(花判 : 화판)이여」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과연 그렇다면 향가는 노래 자체에 주술성을 내포한 주사인 것일까?

- [삼국유사] <월명사 도솔가> 조에서 주사의 근거 찾고 향가를 주사로 이해하곤 함

“天地鬼神(천지귀신)을 感動(감동)”

- **but**

향가를 가창하거나 첩부함으로써 이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향가”라는 작품군을 곧장 주사(呪詞)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음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 <구지가>와 <원가>
 - <구지가>를 가창하게 한 구간은 주술사 혹은 사제
 - 제정일치시대의 부족장들을 사제로 보는 것은 가능
 - [삼국유사] <어산불영>에는 “수로” 또한 주술사와 같은 사제임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음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魚山佛影(어산불영)> [삼국유사] 탐상 제 4

○ 古記(고기)에 말하기를 萬魚寺(만어사)는 옛날의 慈成山(자성산) 또는 阿耶斯山(아야사산)【(阿耶斯(아야사)는) 마땅히 摩耶斯(마야사)라고 해야 할 것이니 곧 魚(어)라는 말이다】인데 그 옆에 呵羅國(가라국)이 있었다. 옛적에 하늘에서 알이 바닷가에 내려와 사람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으니 곧 **首露王(수로왕)**이다. 이때에 境內(경내)에 玉池(옥지)가 있어 (그) 못 속에 毒龍(독룡)이 살고 있었다. 萬魚山(만어산)에 다섯 羅囉女(나라녀)가 있어 (그 毒龍(독룡)과) 서로 往來(왕래) 交通(교통)하였다. 그러므로 번개와 비를 때때로 내려 四年(4년)동안에 五穀(오곡)이 되지 않았다. **王(왕)이 呪術(주술)로** (이것을) 禁(금)하려 하였으나 능히 禁(금)치 못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부처에 청하여 說法(설법)한 후에야 羅刹女(나찰녀)가 五戒(오계)를 받아 그 뒤에는 災害(재해)가 없어졌다.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 <구지가>와 <원가>
 - 그러나 효성왕대(효성왕 1년, 737년)에 신충이 지은 향가 <원가>(신충
괘관 참조)는 노래 자체에 주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술행위를 구사하
지도 않았지만 신이한 현상을 보이기도 했음
 - 왕이 해당 나무를 두고 신충을 잊지 않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에 나무가
시든 것이지, 노래에 주술성이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의미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信忠掛冠(신충괘관)> [삼국유사] 권 5, 탑상 제 4

○ 孝成王(효성왕)이 潛邸時(잠저시)에 賢士(현사) 信忠(신충)과 더불어 宮庭(궁정) 잣나무 밑에서 바둑을 두었는데, 어느날 [信忠(신충)에게] 이르기를 他日(타일)에 내가 만일 그대를 잊는다면 저 잣나무가 證人(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매, 信忠(신충)이 일어나 절하였다. 두어 달 후에 王(왕)이 卽位(즉위)하여 功臣(공신)에게 賞(상)을 주되 信忠(신충)을 잊고 차례에 넣지 아니하였다. 忠(충)이 원망하여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붙였더니, 나무가 忽然(홀연) 말라 버렸다. 王(왕)이 이상히 여기어 사람을 시켜 조사케 하였던바, 노래를 얻어 바쳤다. 王(왕)이 大驚(대경)하여 가로되 「萬事(만사)를 掌握(장악)함에 거의 角弓(각궁)을 잊을 뻔 하였다」하고 그를 불러 爵祿(작록)을 주니, 栢樹(백수)가 다시 蘇生(소생)하였다. 그 노래에 하였으되 「무릇 잣나무가 가을에 아니 울어 (시들어) 듯이 너 어찌 니저시랴 하고 말씀하옵신 우러러 뵈던 날이 계시운데, 달 그림자 옛뭇에 지나는 물결을 원망하듯 얼굴을 바라보나, 世上(세상)도 싫증이 나²²는구나」하였는데 뒷 句(구)는 없어졌다.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 고유신앙에 바탕을 두고 불린 <구지가>, <해가> 등과 같은 주사적 성격의 시가군과 불교신앙에 바탕을 둔 <혜성가>, <도솔가>, <도천수대비가> 등을 동질적으로 파악해서는 안 됨

*<해가> : 신라 성덕왕 때 수로라는 이름의 부인이 해변에서 용에게 납치되자 일반 백성을 모아 불렀다는 노래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향가가 신이성을 내포하는 이유

- 언어의 힘을 믿는 “언어주술관”은 고대의 종교적 인간이 가졌던 보편적인 믿음 / 이것만을 근거로 향가의 주술성을 말하는 것은 무리
- 향가의 작가층, 향유층은 신라 불교문화를 숭상했기 때문
- 향가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향유층의 신앙을 이해해야 함
- 향가의 주사적, 마술적 성격은 주술행위와 직접적 연관은 없음
- 향가의 주사적 성격은 불교의 “주밀사상”에 바탕을 두었다고 봄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주술밀교의 전래와 향가

Ⅲ. 新羅의 呪密思想

密敎란 眞言祕密敎(진언비밀교)의 준말로서 顯敎에 대립되는 佛敎를 말한다. 이의 分類를 雜密(雜部密敎·呪密)과 純密로 二分法하는 경우와 初期密敎·中期密敎·後期密敎(左道密敎)로 三分法 하는 경우와 所作탄트라(Lriya tantra)·行탄트라(Carya tantra)·瑜伽(유가)탄트라(Yōga tantra)·無上瑜伽탄트라(Anuttarayoga tantra)로 四分法하는 경우가 있는데, 필자가 월명사의 도솔가와 관련된 신라의 밀교사상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雜密 즉 初期密敎, 所作탄트라 불교 (Kriya tantric Buddhism)이다.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 <도솔가>

- <도솔가>의 작가 월명사는 승려, 국선지도 (주술사가 아님)
- 조원전에서의 의식 또한 주술의례가 아니라 산화행법의 불교의례임
- 주술을 거는 대상 또한 변괴를 일으킨 해가 아니라 불보살의 사자인 꽃
 임
- 따라서 도솔가를 주가라 보기 어려움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 <혜성가>

- 진평왕 때 왕을 상징하는 심성에 변란의 조짐을 보이는 혜성이 침범
- 변괴를 퇴치하기 위해 승려낭도인 용천사가 노래를 부름
- 혜성가에도 무방주술, 감염주술적인 내용은 전혀 없음
- <구지가>와 같은 고대 가요가 “환기법”과 “명령법”, “가정법”과 “서술법”을 주축으로 하는 전후 대우를 이룬다면, <혜성가>는 그러한 구성원리 없음
- <혜성가>가 별을 물리치는 주가라고 하기에는 유약함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融天師彗星歌(융천사혜성가) 眞平王代(진평왕대)[삼국유사] 권 5, 감통 7

○ 第五(제5) 居烈郎(거열랑), 第六(제6) 實處郎(실처랑)【혹은 突處郎(돌처랑)이라고 씀】, 第七(제7) 寶同郎(보동랑) 등 세 花郎(화랑)의 무리가 楓岳(풍악)에 놀려고 하였을 때, 彗星(혜성)이 心大星(심대성)을 犯(범)하였다. 郎徒(랑도)들이 疑訝(의아)하여 旅行(여행)을 中止(중지)하려고 하였다. 이때에 融天師(융천사)가 鄉歌(향가)를 지어 부르매 怪星(괴성)이 곧 없어지고 日本兵(일본병)이 물러가서 도리어 경사가 되었다. 大王(대왕)이 기뻐하여 郎徒(랑도)들을 楓岳(풍악)에 놀러 보냈다.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그 鄉歌(향가)에 「옛날 東海(동해)가의 乾
達婆(건달파)가 놀던 城(성)을 바라보고
倭軍(왜군)이 왔다고 봉화를 사르게 한 東
海邊(동해변)이 있도다. 三花郎(3화랑)의
오름을 보옵심을 듣고 달도 빨리 그 빛을
나타내므로 길을 쓰는 별을 바라보고 彗星
(혜성)이라 말한 사람이 있다. 後句(후구)
아아 달이 아래에 떠갔도다. 어이유 무슨
彗星(혜성)이 있을고」.



간다르바(오른쪽) 10세기, 베트남 / (출처 위키백과)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 <처용가>

- 처용은 개운포에서 벼판 동해용신제의에 참가했던 사제 가운데 한 명인 남무이거나 주무에 종속된 조무, 가무에 능통했던 인물
- 노래와 춤으로 왕정을 보좌하는 임무를 맡았을 것임
- 역신이 물러가게 된 계기도 “노래” 때문이 아니라 처용이 화를 내지 않았기 때문(노하지 않음에 감복)
- 노래에는 주력이 없었고, 오히려 그의 춤이나 표정에 주력이 있었을 듯
- 고대인들에게 춤은 주력을 보증해주는 주술행위로 여겨짐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處容郎(처용랑)과 望海寺(망해사)[삼국유사] 권2, 기이 2

第四十九代(제49대) 憲康大王時代(헌강대왕시대)에 서울로부터 海內(해내)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이 連(연)하고 草家(초가)는 하나도 없었으며, 풍악과 노래가 길에서 끊이지 않고 風雨(풍우)는 四(사)철 순조로웠다. 이에 大王(대왕)이 開雲浦(개운포)【鶴城西南(학성서남)에 있으니 지금 蔚州(울주)】에 出遊(출유)하였다가 장차 돌아올새 낮에 물가에서 쉬었는데 忽然(홀연)히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길을 잃을 程度(정도)이었다. 괴상히 여겨 左右(좌우)에게 물으니 日官(일관)이 아뢰되 이것은 東海龍(동해룡)의 造化(조화)이므로 좋은 일을 행하여 풀 것이라 하였다. 이에 當該官員(당해관원)에게 命(명)하여 龍(용)을 위하여 近處(근처)에 절을 세우도록 하였다.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王命(왕명)이 이미 내리매 구름이 개이고 안개가 흩어졌다. 그래서 開雲浦(개운포)라 이름지었다. 東海龍(동해룡)이 기뻐하여 아들 일곱을 데리고 임금 앞에 나타나서 德(덕)을 讚揚(찬양)하고 춤을 추며 音樂(음악)을 演奏(연주)하였다. 그중 一子(1자)는 임금을 따라 서울에 와서 政事(정사)를 輔佐(보좌)하였는데 **이름을 處容(처용)**이라 하였다. 王(왕)이 美女(미녀)로서 아내를 삼게 하여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하고 또 綴干(급간)의 職(직)을 주었다. 그의 아내가 매우 아름다웠으므로 疫神(역신)이 흠모하여 사람으로 變(변)하여 밤에 그 집에 가서 몰래 同寢(동침)하였다. 處容(처용)이 밖으로부터 집에 돌아와 자리에 두 사람이 누웠음을 보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물러나갔다.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노래에 가로되 「東京(동경) 밝은 달에, 밤드러(새어) 노니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가라리(다리) 네히러라, 둘은 내해이고 둘은 뉘해언고, 본디 내해 다만은 뺏겼으니 어찌하리꼬」라 하였다. 그 때에 神(신)이 現形(현형)하여 앞에 꿇어앉아 가로되 내가 公(공)의 아내를 사모하여 지금 過誤(과오)를 犯(범)하였는데 **公(공)이 怒(노)하지 아니하니 感激(감격)하여** 아름답히 여기는 바다. 금후로는 맹세코 公(공)의 형용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門(문)에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였다. 이로 인하여 國人(국인)은 處容(처용)의 형상을 門(문)에 붙여서 邪鬼(사귀)를 물리치고 경사를 맞아 들었다. 王(왕)이 이미 (서울에) 還御(환어)하여 靈鷲山東麓(영취산동록)의 勝地(승지)를 擇(택)해서 절을 세우고 이름을 望海寺(망해사) 또는 新房寺(신방사)라고 하였으니 龍(용)을 위하여 建置(건치)한 것이었다. (뒷 내용은 참고)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또 王(왕)이 鮑石亭(포석정)에 行幸(행행)하였을 때에 南山神(남산신)이 現形(현형)하여 御前(어전)에서 춤을 추었는데 左右(좌우)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王(왕)에게만 홀로 보이었다. 사람이 앞에 나타나 춤을 추고 王自身(왕자신)도 춤을 추어 그 形狀(형상)을 보이었다. 神(신)의 이름을 혹은 祥審(상심)이라 하였으므로 지금까지도 國人(국민)이 이 춤을 傳(전)하여 御舞祥審(어무상심), 또는 御舞山神(어무산신)이라 한다. 或說(혹설)에는 神(신)이 이미 나와 춤을 추자 그 모양을 살피어 工人(공인)에게 命(명)하여 摹刻(모각)시켜 後世(후세)에 보이게 하였으므로, 象審(상심)이라 하였다 하고 혹은 霜髯舞(상염무)라고도 하니 이것은 그 형상에 따라 이름지은 것이다.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또 王(왕)이 金剛嶺(금강령)에 行幸(행행)하였을 때에 北岳神(북악신)이 나와 춤을 추었으므로 그 이름을 玉刀鈴(옥도령)이라 하고, 또 同禮殿宴會時(동례전연회시)에는 地神(지신)이 나와 춤을 추었으므로, 地伯級干(지백급간)이라 이름하였다. 語法集(어법집)에는 그때 山神(산신)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되 「智理多都波(지리다도파)」라 하였는데, 都波云云(도파운운)은 대개 智慧(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미리 알고 많이 도망하여 都邑(도읍)이 장차 破(파)한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즉 地神(지신)과 山神(산신)은 나라가 장차 망할 줄 알았으므로 춤을 추어 경계케 하였건만은 國人(국민)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祥瑞(상서)가 나타났다고 하여 耽樂(탐락)을 더욱 甚(심)히 한 까닭에 나라가 마침내 亡(망)하였던 것이라 한다.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정리

- 신라에 주술밀교가 전래된 것은 **선덕왕 4년**, 명랑법사가 당나라에서 귀국할 때 불설관정복마봉인대신주경에 있는 문두루(신인)의 비밀지법을 가져온 것이 계기임
- 무불 교체기, 불교의 주력, 법력이 토속신앙인 무격신앙의 주력보다 승함을 나타내기 위해 불승이나 신도들이 불교 관련 설화를 만들어냄
- <밀본최사조>, <혜통가용조>(38쪽) 등은 밀본법사나 혜통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때가 되면 주술밀교의 치병비법이 우리 나라에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음
- **7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왕실이나 귀족층에서는 양재초복의 제반 행사를 주술밀교의 비법으로 치렀다고 할 수 있음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 밀본, 혜통, 이효 등이 활약
- 주술밀교승은 질병 퇴치, 원적의 축출, 액의 제거, 기우, 기자, 기복, 기명 등 제액초복 의례 주관하며 밀교의 비법을 전파
- 약사여래, 십일면관음보살, 천수관음보살, 미륵보살, 문수보살, 사천왕 등을 신봉
- 법화경, 금광명경, 인왕경, 수구다라니경 등을 경전으로 삼음
- 정리하면, 7세기 초 진평왕 때 혜성이 나타나거나, 8세기 경덕왕 때 해가 둘 나타나 이를 없앨 때 주술밀교적인 주력을 행사할 수 있는 승려낭도인 융천사나 월명사가 주술밀교적 의례를 배설하고 변괴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향가를 불렀다고 할 수 있음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 이 때 불린 향가는 주술사나 무격이 부른 주사가 아니라, 주술밀교를 신앙하는 승려낭도가 변괴를 없애기 위해 사용한 노래이므로, **주밀사상**을 바탕에 두었다고 해야 함
- <원가>를 부른 신충 역시 만년에 보살행을 닦은 인물로서, 왕의 배약에 대한 원망을 백수에 호소한 것이지 주력을 보이려 하지는 않았을 듯
- 주사적 성격의 향가는 주술적 효과의 보증을 위해 주술사가 부른 것이 아니고, 주술밀교를 신봉하던 승려 낭도가 양재초복을 위해 부른 것, 작가가 시가의 감통력을 인지하고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따라 노래를 불렀는데, 우연히 실험을 얻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함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2. <삼국유사>와 이야기

연오랑세오녀

- <삼국유사> 기이편에 수록된 일월관련 신화의 일종
- 동아시아에 일월 관련신화 산재
- 일월신화는 농경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지역에서 두루 발견 : 동아시아, 인도 동북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평양 일대의 섬, 미주지역 등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 일월신화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일월탄생신화, 일월조정(調定)신화**
- **일월탄생신화**
 - 반고가 죽은 뒤에 그의 왼쪽 눈은 둥글고 밝은 태양이 되어 천상의 높은 곳에서 주야로 대지에 따스함을 보내주었다. 오른쪽 눈은 달이 되어 대지를 비추었다. (중국창세신화)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 민담적 세계관이 반영된 일월탄생담
 - 한반도에서는 일월탄생신화 다소 약화 (창세신 송양의 퇴조, 생산신의 비중 향상)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 일월조정신화

<두 개 이상의 해와 달을 없애는 유형>

- 창세대신이 하늘을 창조한 후 하늘에 12개의 태양이 나타나 뜨겁게 내리쬐니 인간들이 햇볕에 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그는 그의 아들 9명을 시켜 10개의 태양을 쏘아 떨어뜨리게 했다. 그 후 남은 태양 둘이 주야로 교대하며 떠오르게 하니, 낮에 뜨는 것이 해이며 밤에 뜨는 것이 달이다.(동아시아 지역 侗族의 신화)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사라진 해와 달을 찾는 유형>

- 무더위보다 추위가 문제시되던 북방 민족들의 신화로 추정
- 어느 한 마을에 삼태자가 유복자로 태어난다. 삼태자는 각 10년 동안 재주를 하나씩 배워 온다. 하루는 광풍이 몰아치고 소나기가 내리더니 해가 사라진다. 태자들이 해를 찾아 떠난다. 스승을 만나 방도를 세우려 했으나 실패한 후, 더 뛰어난 고승을 찾아간다. 고승은 암수 흑룡 두 마리 때문에 해가 없어졌음을 알려준다. 삼태자와 스승이 흑룡을 없앤다. 그러나 흑룡 한 마리가 죽지 않고 흑룡담으로 들어가버려, 언제 해를 삼키려 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한다. 이에 삼태자가 어머니의 명에 따라 하늘로 올라가 해를 지키게 되었다. (연변지역 신화)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 연오랑 세오녀 해석
 - 일식, 월식 현상 : 농경민이 태양의 힘을 회복하고자 했던 의례의 정착 (작변에 의해 일월의 힘 약화)
 - 태양신을 수호하려는 세력과 수신적 성격을 띤 객체와의 갈등
 - 문화전파담

옛 문헌 속 이야기와 노래

<延烏郎 細烏女> - <삼국유사> 기이

第八阿達羅王卽位四年丁酉 東海濱有延烏郎細烏女 夫婦而居. 一日 延烏歸海採藻 忽有一巖(一云一魚) 負歸日本 國人見之曰此非常人也 乃立爲王. (按日本帝記, 前後無新羅人爲王者, 此乃邊邑小王而非眞王也.) 細烏怪夫不來 歸尋之 見夫脫鞋 亦上其巖 巖亦負歸如前. 其國人驚訝 奏獻於王 夫婦相會 立爲貴妃. 是時 新羅日月無光 日者奏云 日月之精 降在我國 今去日本 故致斯怪. 王遣使求二人 延烏曰 我到此國 天使然也 今何歸乎. 雖然朕之妃有所織細綃 以此祭天可矣 仍賜其綃. 使人來奏 依其言而祭之 然後日月如舊. 藏其綃於御庫爲國寶 名其庫爲貴妃庫. 祭天所名迎日縣 又都祈野.

수고했습니다